

여수시, 미취항 소외도서 3개 항로에 섬섬여수 1,2,3호 취항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선정...2억7천만원 확보 도서지역 모든 유인섬 뱃길 열려...해당 섬 주민들 ‘환영’

여수 도서지역 모든 미 취항 유인섬에 뱃길이 열린다.
19일 여수시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미 취항 유인섬 3개 항로에 올해 안에 섬섬여수 1,2,3호가 운항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내 섬 중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을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 전국에 10개 항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는 화양면 대운두도와 남면 소두라도, 소외간도 등 2개 항로가 선정됐다.
또한, 8월에는 화정면 추도가 추가 선정돼 국비 1억3천5백만 원 포함 총 2억7천만 원을 확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전남 고흥과 경남 고성에서 해당 항로에 투입할 감척어선을 확보하는 한편, 약 5개월에 걸쳐 이 어선의 기타 선박 변경 등록, 선박 수리 및 검사 등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현재는 선장 안전교육도 마친 상태로 선명은 우리 시 BI를 활용해 ‘섬섬여수 1호, 2호, 3호’로 명명했다.
취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19일 화양면 대운두도와 감도를 운항하게 되는 섬섬여수 1호를 필두로, 2호(남면 소두라도와 소외간도, 월전)와 3호(추도와 남도)가 순차적으로 운항에 나선다.

정기령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미 취항 유인섬에 새로이 뱃길이 열려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순천시는 최근 이틀간 먹거리 보장 위원회 등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완주,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민가공센터·먹거리통합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지역 먹거리 계획(Food Plan)’은 로컬푸드(Local Food)를 활용해 생산-가공-유통-소

비-복지-환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생산 시스템 구축 ▲소비처 확대 ▲건강 먹거리 보장 ▲민관 협치 4개 분야, 60여 개 사업을 과제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더하여, 먹거리 관련 위원회 및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계획 이해 교육, 학교급식 관계자 선진지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자원봉사자 대회’ 성황리에 개최

보성군 자원봉사센터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보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3년 보성군 자원봉사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자원봉사자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1년간 활동을 공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400여 명의 보성군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으며 ‘보성을 밝히는 빛, 우리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식전 행사, 자원봉사 활

동 영상 상영, 시상, 기념사, 축사, 대회 주요 행위(퍼포먼스),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 해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3개의 자원봉사단체, 1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성군수 표창을 수여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을 밝히는 빛!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보성의 오늘이, 보성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면서 “오래 하루만은 봉사자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성=김택순기자

광양시,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확대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3년 이내로 확대 지원

광양시는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결혼 3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부부에게 지원되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는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다.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

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로 임신 전 감염성 질환 등 본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미숙아·장아 등의 발생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양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청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4년 1월 31일까지...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고흥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으로 최종 선정 시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으로, 농지 구입과 가공시설 설치, 축사 신축 개보수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고 융자금을 5억 원(연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